

# 공주 대통사와 동아시아 불교

## -『삼국유사』 ‘원종홍법염촉멸신’의 비판적 검토-

조 경 철\*

### 「目次」

- |                          |                         |
|--------------------------|-------------------------|
| I. 머리말, 동아시아를 뒤 흐든 527년  | IV. 대통사의 창건연대와 창건목적     |
| II. 대통사 기록의 전거           | V. 맺음말, 공주 대통사와 동아시아 불교 |
| III. 만들어진 이차돈의 순교연대 527년 |                         |

### 국문요약

『삼국유사』에 유령이 출몰하였다. 바로 ‘527’년이다. 527년은 동아시아 불교에서 획기적인 해다. 백제가 양무제를 위하여 대통사를 창건한 해가 527년이다. 신라 불교 공인의 절대적 공헌을 한 이차돈의 순교연대가 527년이다. 신라 최초의 절 흥륜사의 터를 닦은 해가 527년이다. 신라의 남지 법사가 처음으로 영축산에서 불법을 연 해가 527년이다.

그러나 백제와 신라에서 일어난 위와 같은 사건은 527년에 일어나지 않았다. 중국의 527년에 맞춘 연대다. 중국의 양무제가 동태사에 捨身한 해가 527년이다. 인도의 달마가 중국에 선종을 전한 해가 527년이다. 사실 이차돈의 순교연대는 527년이 아니라 528년이었다. 백제의 대통사 창건연대는 527년이 아니었다. 모두 한국불교를 중국불교에 맞추고자 했던 욕망이 만들어 낸 유령이었다.

주제어 : 527년, 유령, 양무제, 달마, 대통사, 이차돈

## I. 머리말, 동아시아를 뒤 흐든 527년

『삼국유사』에 유령이 출몰하였다. 바로 ‘527’년이다. 527년은 동아시아 불교에서 획기적인 해다. 양무제가 동태사에 捨身한 해다. 황제가 절에 사신한 경우는 중국에서 양무제가 처음이다. 인도의 달마가 선종을 전하기 위해 중국에 들어와 양무제를 만난 해도 527년이다. 양무제

의 사신은 전고려(=고구려), 백제, 신라 특히 남조와 밀접한 관련을 맺었던 백제나 불교를 늦게 받아들인 신라에 큰 영향을 끼쳤다.

백제는 대통 원년(527) 당시 도읍인 웅진에 양나라 무제를 위해서 대통사를 창건했다고 한다. 중국 황제의 연호를 따라서 절 이름을 삼은 경우는 대통사가 처음이었다. 신라는 527년 이차돈의 순교가 있었고 이를 계기로 신라에 불교가 공인되었다.

한국불교를 중국불교의 관점에서 해석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527년이다. 그러나 527년 이차돈의 순교연대와 527년 대통사의 창건연대는 만들어진 연대였다. 한국불교를 중국 불교에 맞추고자 했던 욕망이 만들어 낸 연대였다.

## Ⅱ. 대통사 기록의 전거

『삼국유사』 ‘원종홍법염촉멸신’에 보이는 대통사 관련기록은 문맥상 신라의 법흥왕이 대통 원년(527) 양나라 무제를 위하여 당시 백제의 도읍인 웅진에 절을 세웠다는 내용이라 많은 논란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학계는 단순히 신라의 법흥왕을 백제의 성왕으로 바꾸어 이해해 왔다. 어떤 경로를 거쳐 백제의 절인 대통사가 ‘원종홍법염촉멸신’조에 실리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검토가 없었다. 대통사의 기록의 전거를 확인하기 위해 다소 길지만 ‘원종홍법염촉멸신’조를 모두 인용해 보겠다.

(1) 신라본기에 이르기를, 「법흥대왕 즉위 14년에 小臣 이차돈이 불법을 위하여 제 몸을 없앴다」고 하였으니, 바로 蕭梁 보통 8년 정미(527)로 서천축[西竺]의 달마가 금릉에 왔던 해이다. 이 해에 남지 법사가 역시 처음으로 영축산에서 불법을 열었으니, 대교의 흥하고 쇠하는 것은 반드시 遠近이 동시에 서로 감응한다는 것을 여기서 믿지 않을 수 없다.

원화 연간에 남간사의 사문 一念이 (2) **축향분예불결사문**을 지었는데, 이 사실을 매우 자세히 실었다.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옛날 법흥대왕이 자극전에서 즉위하고 동방[扶桑]의 땅을 굽어 살펴보고 말씀하시기를, “옛적 한나라 명제가 꿈에 감응 받아 불법이 동쪽으로 흘러왔다. 과인은 즉위하면서부터 창생을 위하여 복을 닦고 죄를 없앨 곳을 만들려고 염원해왔다”고 하였다. 이에 朝臣들 <鄉傳에는 工目, 諷恭 등이라고 하였다.>은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다만 나라를 다스리는 大義만을 준수했을 뿐이고 절을 세우겠다는 신성한 계획은 따르지 않았다.

대왕이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아아, 과인은 덕이 없이 왕업을 계승하니, 위로는 음양의 조화를 훼손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즐거움이 없으므로 정무의 여가에 마음을 불도[釋風]에 두고자 하지만, 누구와 함께 동반할 것인가?”라고 하였다.

이에 내양한 자(內養者)가 있어 성은 박, 자는 厭羈 <혹은 異次라고 하고, 혹은 伊處라고도 하니, 방언의 음이 다르기 때문이다. 번역하면 厭이 된다. 羈, 頓, 道, 觀, 獨 등은 모두 글 쓰는 사람의 편의에 따른 것으로, 곧 助辭이다. 이제 윗 자만 번역하고 아랫 자는 번역하지 않았으므로 厭羈 또는 厭觀 등이라고 한 것이다.>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자세하지 않으나, 할아버지는 阿珍 宗으로, 곧 습보갈문왕의 아들이다. <신라의 관작은 모두 17등급인데, 그 네 번째는 파진찬 또는 아진찬이라고도 한다. 중은 그 이름이고, 습보도 이름이다. 신라인은 대체로 추봉한 왕을 모두 갈문왕이라고 했는데, 그 실상은 史臣도 역시 자세히 모른다고 하였다. 또 김용행이 지은 아도비를 살펴보면, 舍人是 그때 나이가 26세이며, 아버지는 길승, 할아버지는 공한, 증조부는 걸해대왕이라고 하였다.>

[그는] 竹伯과 같이 [곧은] 자질을 드러내고 水鏡과 같이 [맑은] 뜻을 품었으며, 積善한 이의 증손으로서 조정의 중심(爪牙)으로 촉망되고, 聖朝의 충신으로 태평성대(河清)의 시종이 되기를 바랐다. 그때 나이 22세, 사인 <신라 관작에 大舍, 小舍 등이 있었는데, 대개 下士의 등급이다.>의 자리에 있었다.

용안을 우러러보고 [왕의] 뜻을 눈치 채고 아뢰기를, “신이 들으니 옛사람은 비천한 사람(蕤蕤)에게도 계책을 물었다고 하니, 중죄를 피하지 않고 [대왕의 뜻을] 여쭙기를 원합니다”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네가 할 바가 아니다”고 하였다. 사인이 말하기를, “나라를 위하여 몸을 희생하는 것은 신하의 큰 절개이며, 임금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은 백성의 바른 의리입니다. 사령을 그릇되게 전했다고 하여 신을 형벌하여 머리를 벤다면 만민이 모두 복종하여 감히 지시를 어기지 못할 것입니다”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살을 베어 저울에 달더라도 한 마리 새를 살리려고 했고, 피를 뿌리고 목숨을 끊어서라도 일곱 마리의 짐승을 스스로 불쌍히 여겼다. 나의 뜻은 사람을 이롭게 하려는 것인데, 어찌 죄 없는 사람을 죽이겠느냐? 네가 비록 공덕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죄를 피하는 것만 못할 것이다”고 하였다. 사인이 말하기를, “일체를 버리기 어렵지만 제 목숨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신이 저녁에 죽어 아침에 대교가 행해진다면, 佛日이 다시 중천에 오르고 聖主께서는 길이 편안하실 것입니다”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난새와 봉새의 새끼는 어려서도 하늘로 솟구칠 마음을 지니고, 기러기와 따오기의 새끼는 나면서부터 바다를 건널 기세를 품었다고 하더니 네가 이와 같구나. 가히 大士의 행이라고 할 만하다”고 하였다.

이에 대왕은 일부러 위의를 갖춰 바람같은 조두(風刃)를 동서로 늘이고 서릿발 같은 무기를 남북에 벌여 놓고 여러 신하들을 불러 묻기를, “그대들은 내가 精舍를 지으려고 하는데 고의로 지체시키는가?” <향전에 이르기를, 「염축이 왕명이라고 하면서 공사를 일으켜 절을 창건한다는 뜻을 전했더니 여러 신하들이 와서 간하였다. 왕은 이에 노하여 염축을 책망하고, 왕명을 거짓으로 꾸며 전하였다고 하여 형벌을 가하였다」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이에 여러 신하들이 전전궁궁하며 황급히 맹서하고 손가락으로 동서를 가리켰다. 왕이 사인을 불러 힐문하니, 사인은 얼굴빛이 변하면서 대답할 말이 없었다. 대왕이 분노하여 그

의 목을 베라고 명령하니 有司가 [그를] 묶어 관아로 끌고 왔다. 사인이 발원하고 獄吏가 목을 베니 흰 젖이 한 길이나 솟아올랐다. <향전에는 사인이 맹세하기를, “大聖法王께서 불교를 일으키려고 하므로 [저는] 신명을 돌보지 않고 한없이 오랜 세월에 인연을 맺어오니 하늘에서는 상서를 내려 사람들에게 두루 보여주소서”라고 하니, 이에 그의 머리가 날아가서 금강산 꼭대기에 떨어졌다.>고 하였다.>

하늘은 사방이 침침해지고 斜陽이 빛을 감추고, 땅이 진동하면서 꽃비가 내렸다. 성왕[聖王]은 슬퍼하여 눈물이 곤룡포를 적시고, 재상은 근심하여 조관[蟬冕]에까지 땀이 흘렀다. 샘물이 갑자기 마르매 고기와 자라가 다투어 뛰고, 곧은 나무가 먼저 부러지니 원숭이가 떼를 지어 울었다. 春宮에서 말고삐를 나란히 했던 친구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서로 돌아보고, 月庭에서 소매를 맞잡던 친구들은 창자가 끊어지듯 이별을 애석해 하였다. 상여를 바라보며 장송곡을 듣는 이들은 마치 부모를 잃은 듯하였다. 모두들 말하기를, “개자추[子搆]가 다리살을 벤 것도 이 苦節에 비할 수 없고, 흥연이 배를 가르 일인들 어찌 이 장렬함에 견주랴. 이는 임금님[丹堦]의 신앙력을 붙들여 아도의 불심을 이룬 聖者다”고 하였다.

드디어 북산의 서쪽 고개 <즉, 금강산이다. 傳에서는 「머리가 날아가 떨어진 곳에 장사지냈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밝히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인지?>에 장사지냈다. 내인[內人]들은 이를 슬퍼하여 좋은 터를 잡아서 蘭若를 짓고, 이름을 자추사라고 하였다. 이에 집집마다 예를 하면 반드시 대대로 영화를 얻고, 사람마다 도를 닦으면 마땅히 불법의 이익을 깨닫게 되었다.

진흥대왕 즉위 5년 갑자에 대흥륜사를 지었다. <『**국사**』와 **향전**에 의하면, 실은 법흥왕 14년 정미(527)에 터를 잡고, 21년 을묘에 천경림을 크게 별채하여 처음으로 공사를 일으키고, 서까래와 대들보를 모두 그 숲에서 취해 쓰기에 넉넉했고, 계단의 초석이나 석감도 모두 있었다. 진흥왕 5년 甲子에 절이 낙성되었으므로 갑자라고 한 것이다. 『**승전**』에 7년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태청 초년에 양나라 사신 심호가 사리를 가져왔고, 천가 6년(565)에는 진나라 사신 유사가 승 明觀과 함께 內經을 받들고 왔다.

절과 절들은 별처럼 벌여 있고, 탑과 탑들은 기러기 행렬인양 늘어섰다. 法幢을 세우고 범종을 매어다니, 龍象같은 승려의 무리가 세상의 福田이 되고, 大小乘의 불법이 서울의 자비로운 구름이 되었다. 他方의 보살이 세상에 출현하고 <芬皇의 陳那와 浮石의 寶蓋, 그리고 洛山과 오대산[五臺]에 이르기까지가 이런 것이다.> 서역의 명승들이 [이] 땅에 강림하니, 이로 인하여 삼한을 병합하여 한 나라가 되고, 온 세상을 합하여 한 집안을 만들었다. 이 때문에 德名을 天錫의 나무에 새기고, 신성한 행적을 은하수 물에 그림자로 남겼으니, [이] 어찌 세성인의 위덕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세 성인인] 아도, 법흥, 염축을 말한다.>

훗날 國統 혜릉, 法主 효원과 金相郞 大統 녹풍, 大書省 진노, 波珍噲 김의 등이 옛 무덤을 수축하고 큰 비를 세웠다. [이때가] 원화 12년 丁酉(817) 8월 5일, 즉 제41대 헌덕대왕 9년이 었다.

홍륜사의 영수 禪師 <이때는 瑜伽의 諸德을 모두 선사라고 불렀다.>가 이 무덤에 예불하는 향도를 모아서 매달 5일에 혼의 妙願을 위해 단을 모으고 범패를 지었다.

또 (3) 향전에 이르기를, 「鄉老들이 항상 그의 돌아간 날이 되면 社를 만들어 홍륜사에서 모였다」고 하였는데, 즉 이 달 초닷새는 사인이 몸을 바쳐 불법에 귀순하던 날이다. 아아! 이러한 임금이 없었으면 이러한 신하가 없었을 것이고, 이러한 신하가 없으면 이러한 공덕이 없었을 것이니, 유비와 제갈량[葛]이 물과 고기 같았던 것과 같고 구름과 용이 서로 감응한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겠다.

법흥왕이 이미 폐지된 [불교를] 일으켜 절을 세우고, 절이 낙성됨에 면류관을 벗고 가사를 입었으며, 궁중의 친척들을 내놓아 절의 종으로 삼았다. <절의 종은 지금까지도 왕손이라고 한다. 그 후 太宗王 때 재상 김양도가 불법을 믿었다. [그에게는] 두 딸이 있어 花寶와 蓮寶라고 했는데, 捨身하여 이 절의 종이 되었다. 또 逆臣 모척의 가족을 [이] 절의 노예로 삼았는데, [이] 두 가족의 후손이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았다.> 그 절의 주지가 되어 몸소 불교를 널리 폈다. 진흥왕이 [그의] 덕행을 이은 성군이었기에 왕위를 이어 임금의 자리에 처하여 위엄으로 백관을 통솔하니 호령이 다 갖추어졌으므로 대왕홍륜사로 사액하였다.

前王의 성은 김씨인데, 출가하여 法雲이라고 했고, 자는 法空이다. <『승전』과 여러 설에서는 역시 왕비도 출가하여 이름을 법운이라고 하였고, 또 진흥왕도 법운이라고 했고, 진흥왕의 비도 법운이라고 했다고 하니 의심스럽고 혼동된 것이 매우 많다.>

(4) 『책부원구』에는 「[법흥왕의] 성은 募이고, 이름은 秦이라고 하였다.」 처음 역사를 일으켰던 을묘년에 왕비도 또한 영흥사를 세우고 史氏의 유풍을 사모하여 왕과 함께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되어 법명을 妙法이라고 하고 또한 영흥사에 살더니, 몇 해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였다.

(5) 『국사』에는 「건복 31년(614)에 영흥사의 소상이 저절로 무너지더니 얼마 후 진흥왕비인 비구니가 죽었다」고 하였다.

살펴보면, 진흥왕은 법흥왕의 조카이고, [그의] 비는 사도부인 박씨이니 모량리 영실각간의 딸이다. 역시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지만 영흥사의 창건주는 아니다. 아마도 眞자를 法자로 써야 할 것 같다. [이는] 법흥왕의 비 파조부인이 여승이 되었다가 죽은 것을 말하니, [그가] 곧 절을 짓고 불상을 세운 주인이기 때문이다. 법흥과 진흥 두 왕이 왕위를 버리고 출가한 것을 역사에 쓰지 않은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교훈이 아니어서였을까?

(6) 또 大通 원년 丁未(527)에는 梁帝를 위하여 熊川州에 절을 짓고 이름을 大通寺라고 하였다. <熊川은 곧 公州인데, 당시는 신라에 속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마도 정미년은 아닌 것 같다. 곧 中大通 원년 己酉(529)년에 세운 것이다. 홍륜사를 처음 세우던 정미년에는 미처

다른 곳에 절을 세울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찬한다. 거룩한 지혜는 만세를 피하나니 구구한 여론은 가을날 터럭같은 것일 뿐 法輪이 金輪을 쫓아 구르니 태평세월에 불일은 빛나도다 이것은 原宗을 [위한 찬이다.] 의를 쫓아 죽는 일 놀랄 일인데 하늘 꽃 흰 젖은 더욱 다정하다 칼날이 한 번 번쩍, 몸을 마친 뒤로 절마다 종소리 서울을 흔든다 이것은 염축을 [위한 찬이다.]

- 1) (1) **新羅本記** 法興大王卽位十四年 小臣異次頓爲法滅身 卽蕭梁普通八年丁未 西竺達摩來金陵之歲也 是年朗智法師 亦始住靈鷲山開法 則大教興衰 必遠近相感一時 於此可信  
 元和中 南澗寺沙門一念 (2) **撰鬪香墳禮佛結社文** 載此事甚詳 其略曰 昔在法興大王垂拱紫極之殿 俯察扶桑之域 以謂昔漢明感夢 佛法東流 寡人自登位 願爲蒼生 欲造修福滅罪之處 於是朝臣「鄉傳云 工目謁恭等」未測深意 唯遵理國之大義 不從建寺之神略 大王嘆曰 於戲 寡人以不德 丕承大業 上虧陰陽之造化 下無黎庶之歡 萬機之暇 留心釋風 誰與爲伴 粵有內養者 姓朴字厭鬪 或作異次 或云伊處 方音之別也 譯云厭也 鬪頓道觀獨等皆隨書者之便 乃助辭也 今譯上不譯下 故云厭鬪 又厭觀等也」其父未詳 祖阿珍宗 卽習寶葛文王之子也「新羅官爵凡十七級 其第四曰波珍噲 亦云阿珍噲也 宗其名也 習寶亦名也 羅人凡追封王者 皆稱葛文王 其實史臣亦云未詳 又按金用行撰阿道碑 舍人時年二十六 父吉升 祖功漢 曾祖乞解大王」挺竹柏而爲質 抱水鏡而爲志 積善曾孫 望宮內之爪牙 聖朝忠臣 企河清之登侍 時年二十二 當舍人「羅爵有大舍小舍等 蓋下土之秩 瞻仰龍顏 知情擊目 奏云 臣聞古人問策蒨薨 願以危罪啓諮 王曰 非爾所爲 舍人曰 爲國亡身 臣之大節 爲君盡命 民之直義 以謬傳辭 刑臣斬首 則萬民咸伏 不敢違教 王曰 解肉枵軀 將贖一鳥 洒血摧命 自怡七獸 朕意利人 何殺無罪 汝雖作功德 不如避罪 舍人曰 一切難捨 不過身命 然小臣夕死 大教朝行 佛日再中 聖主長安 王曰 鸞鳳之子 幼有凌霄之心 鴻鵠之兒 生懷截波之勢 爾得如是 可謂大士之行乎 於焉大王權整威儀 風刁東西 霜仗南北 以召群臣 乃問卿等於我慾造精舍 故作留難」鄉傳云 鬪爲以王命傳下興工創寺之意 群臣來諫 王乃責怒於鬪 刑以僞傳王命 於是群臣戰戰兢兢 德侗作誓 指手東西 王喚舍人而詰之 舍人失色 無辭以對 大王忿怒 勅令斬之 有司縛到衙下 舍人作誓 獄吏斬之 白乳湧出一丈」鄉傳云 舍人誓曰 大聖法王 欲興佛教 不顧身命 多却結緣 天垂端祥 遍示人庶 於是其頭飛出 落於金剛山頂云云 天四黯黹 斜景爲之晦明 地六震動 雨花爲之飄落 聖人哀戚 沾悲淚於龍衣 冢宰憂傷 流經汗於蟬冕 甘泉忽渴 魚鼈爭躍 直木先折 猿猴群鳴 春宮連鑣之侶 泣血相顧 月庭交袖之朋 斷腸惜別 望柩聞聲 如喪考妣 咸謂子推割股 未足比其苦節 弘演剖腹 詎能方其壯烈 此乃扶丹墀之信力 成阿道之本心 聖者也 遂乃葬北山之西嶺 卽金剛山也 傳云 頭飛落處 因葬其地 今不言何也 內人哀之 卜勝地 造蘭若名曰刺楸寺 於是家家作禮 必獲世榮 人人行道 當曉法利 眞興大王卽位五年甲子 造大興輪寺「按國史與鄉傳 實法興王十四年丁未始開 二十一年乙卯大伐天鏡林 始興工 梁棟之材 皆於其林中取足 而階礎石龕皆有之 至眞興王五年甲子寺成 故云甲子 僧傳云七年誤 太清之初 梁使沈湖將舍利 天嘉六年陳使劉思并僧明觀 奉內經并次 寺寺星張 塔塔鷹行 豎法幢 懸梵鐘 龍象釋徒 爲寶中之福田 大小乘法 爲京國之慈雲 他方菩薩出現於世 謂芬皇之陳那浮石寶蓋 以至洛山五臺等是也 西域名僧降臨於境 由是併三韓而爲邦 掩四海而爲家 故書德名於天銀之樹 影神迹於星河之水 豈非三聖威之所致也 謂我道法興厭鬪也 降有國統 惠隆 法主孝圓 金相郎 大統鹿風 大書省眞怒 波珍噲金巖等 建舊塋 樹豐碑 元和十二年丁酉八月五日 卽第四十一憲德大王九年也 興輪寺永秀禪師 于時瑜伽諸德皆稱禪師 結湊斯塚禮佛之香徒 每月五日 爲魂之妙願 營壇作梵
- (3) 又鄉傳云 鄉老每當忌旦 設社會於興輪寺 則今月初五 乃舍人捐軀順法之晨也 嗚呼 無是君無是臣 無是臣無是功 可謂劉葛魚水 雲龍感會之美歟 法興王既舉廢立寺 寺良圖信向佛法 有二女曰花寶 蓮寶 捨身爲此寺婢 又以逆臣毛尺之族 沒寺爲隸 二族之裔至今不絕 主任其寺 躬任弘化 眞興乃繼德重聖 承衰職處九五 威率百僚 號令畢備 因賜額大王興輪寺 前王姓金氏 出家法雲 字法空 僧傳與諸說亦以王妃出家名法雲 又眞興王爲法雲 又以爲眞興之妃名法雲 頗多疑混
- (4) 冊府元龜云 姓募 名秦 初興役之乙卯歲 王妃亦創永興寺 慕史氏之遺風 同王落彩爲尼 名妙法 亦住永

“원종흥법염촉멸신조”의 구성은 신라본기, 축항분에불결사문, 향전, 책부원구, 국사 등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크게 5자료의 인용으로 구성되어있다. 문제의 대통사 관련기록은 (6)번이다. 기존에는 (6) 대통사 기록의 전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삼국유사』에 의하면 또는 『삼국유사』 원종흥법염촉멸신조에 의하면 이라고 두루뭉실하게 취급해 왔다. 대통사 관련기록이 어떤 전거를 갖고 있는지, 일연이 전거를 제시하지 않고 쓴 글인지 규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통사 기록에 대한 분주도 당시 법흥왕 때 공주가 신라 땅이라는 앞뒤 안맞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분주를 일연이 썼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썼는지 규명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대통사 기록이 “원종흥법염촉멸신”조에 실려 있어 신라 불교의 입장에서는 전거가 불분명한 백제 불교의 내용을 따로 다룰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백제 불교의 입장에서 ‘원종흥법염촉멸신’이 신라 불교기록이라고 사료비판없이 신라의 법흥왕을 백제의 성왕으로 바꾸어 이해해 왔기 때문이다.

필자는 대통사에 대한 자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대통사 관련기록 (6)번의 또(又)라고 언급한 전거를 앞서 언급한 (5) 『국사』의 계속인용이라고 보았다.<sup>2)</sup> 『삼국유사』는 수십차례에 걸쳐 『국사』를 인용하고 있는데, 기존의 검토에서는 (6)번의 대통사 기록을 『국사』의 사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sup>3)</sup> 『삼국유사』에 인용된 『국사』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와 같다고 보고 고려 초의 『구삼국사』나 고려 후기의 『국사』로 보기도 한다. ‘원종흥법염촉멸신’에 인용한 (1)의 신라본기와 (5)의 『국사』도 모두 『삼국사기』로 보거나 아니면 『삼국사기』가 아닌 『구삼국사』로 보기도 한다.

(1)의 신라본기와 (5)의 『국사』를 『삼국사기』로 보는 입장에서 (6)번의 대통사 기록을 『국사』로 보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sup>4)</sup> (6)번을 『국사』의 인용으로 본다면 『국사』는 『삼국사기』인데 『삼국사기』에는 대통사에 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sup>5)</sup> ‘원종흥법염촉멸신’의 전체적인

興寺 有年而終

(5) 國史云 建福三十一年 永興寺塑像自壞 未幾眞興王妃比丘尼卒 按眞興乃法興之姪子 妃思刀夫人朴氏 牟梁里英失角干之女 亦出家爲尼 而非永興寺之創主也 則恐眞字當作法 謂法興之妃巴刁夫人爲尼者之卒也 乃創寺立像之主故也 二興捨位出家 史不書 非經世之訓也

(6) 又於大通元年丁未 爲梁帝創寺於熊川州 名大通寺「熊川卽公州也 時屬新羅故也 然恐非丁未也 乃中大通元年己酉歲所創也 始創興輪之丁未 未暇及於他郡立寺也」 讚曰 聖智從來萬世謀 區區輿議謾秋毫 法輪解逐金輪轉 舜日方將佛日高 右原宗 徇義輕生已足驚 天花白乳更多情 俄然一劔身亡後 院院鍾聲動帝京 右厭鬻 원문과 번역은, 강인구 외, 2003, 『역주삼국유사』, 한국학중앙연구원.

2) 조경철, 2006, 「백제불교사의 전개와 정치변동」,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조경철, 2015, 『백제불교사연구』, 일조각.

박현숙, 2012, 「백제 웅진시기의 정국과 대통사」, 『공주 대통사지와 백제』, 아연출판부.

3) 이강래, 1990, 「삼국유사에 있어서의 구삼국사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동방학지』 66.

정구복, 1999, 「『삼국유사』에 인용된 국사와 삼국사」, 『한국중세사학사』, 집문당.

4) 박대재, 2012, 「『삼국유사』에 보이는 대통사 기록의 맥락과 전거」, 『공주대통사지와 백제』, 아연출판부.

맥락을 볼 때 (6)의 대통사 기록은 『국사』가 아니라 (3)번 향전의 계속 인용이라고 하였다.<sup>6)</sup>

현 상황에서는 (6)의 대통사 기록이 향전의 인용인지, 『국사』의 인용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인용인지, 아니면 삼국유사 찬자인 일연의 생각인지, 아니면 일연 이외 다른 찬자가 첨부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대통사 관련 기록이 어떤 연유로 실리게 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향전이다. 『삼국유사』에는 대략 열 다섯 번 향전이 인용되어 있다. 대개 짧은 문장으로 인용되어 있다. 원종흥법염축멸신의 (3)~(6)번까지 향전의 인용으로 본다면 다른 향전의 인용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길게 인용되어 있다. 그리고 향전에는 신라 관련된 기록만 보이고 백제와 전고려(=고구려)<sup>7)</sup> 관련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대통사 관련 기록이 향전에 실려 있다면 향전도 대통원년(527) 법흥왕이 양무제를 위해 대통사를 창건했다고 본 셈이다. 이는 물론 잘못된 기록이다. 일연이 향전을 인용하면서도 향전의 내용이 잘못되면 이에 대한 비판을 싣고 있는데<sup>8)</sup> (6) 대통사의 경우 전혀 527년 당시 공주가 신라 땅이라고 엉뚱한 주석을 달고 있다.

다음 『국사』이다. (6)번이 『국사』의 인용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느 본기일까? 『삼국사기』의 본기는 아니고 『구삼국사』의 본기일 가능성이 높다. (1)번과 같은 신라본기일 경우 대통사는 신라 법흥왕 관련기록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웅진에 세워진 절이므로 이 또한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다. 아니면 백제본기에 들어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삼국유사』에서는 「남부여전백제」조에서 「史本紀」, 「무왕」조에서 「國史云」이라고 하여 『국사』에 백제관련 기록을 싣고 있다. 백제본기에 「대통원년 정미에 양나라 무제를 위해서 대통사를 지었다」라고 기록된 것을 『삼국유사』 찬자가 잘못하여 「원종흥법염축멸신」조에 잘못 실었을 가능성이 있다.

(6)번 대통사 기록과 거기에 딸린 분주와의 관련성이다. (6)의 “대통원년 정미년에 양나라 황제를 위하여 웅진주에 대통사를 창건하였다”라고 한 부분이 ‘향전’이나 『국사』의 인용이라면 당연히 527년에 신라의 법흥왕이 어떻게 당시 백제의 도움인 웅진에 대통사를 세울 수 있

5) 박대재, 2012, 앞의 글.

한편 『삼국유사』에 인용된 “『국사』”를 『삼국사기』로 보지 않는 견해도 많다.

김두진, 2014, 『삼국사기의 사학사적 연구』, 일조각.

6) 박대재, 2012, 앞의 글.

7) 고구려는 평양천도를 전후하여 고려로 나라이름을 바꾸었다. 필자는 주몽의 고려, 궁예의 고려, 왕건의 고려와 구분하여 고구려의 고려를 전고려, 궁예의 고려를 후고려, 왕건의 고려를 통일고려로 부르고 있다.

8) 또 新羅古傳에는 「소정방이 이미 고려와 백제 두 나라를 치고 또 신라를 치려고 머물고 있었다. 이에 유신은 그 음모를 알고 당나라 군사를 초대하여 독약을 먹여 모두 죽여 구덩이에 묻었다」고 하였다. 지금도 尙州 지경에 唐橋가 있는데, 이것이 그 묻은 땅이라고 한다. 「당사를 살펴보면 그 죽은 까닭은 말하지 않고 다만 죽었다고만 했으니 무슨 까닭일까? 감추기 위한 것일까? 혹은 鄉諺이 근거가 없는 것일까? 만약 壬戌年(662) 고구려를 치는 싸움에서 신라 사람이 소정방의 군사를 죽였다면, 그 뒤 총장 戊辰(668)에 어찌 당나라 군사를 청하여 고려를 멸망시킨 일이 있겠는가? **이로써 신라의 향전이 근거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다만 戊辰에 고려를 멸망시킨 후 [신라가] 불충한 일이 있었다면 마음대로 그[고려] 땅을 차지했던 일이 있었을 뿐이요, 소정방과 이적 두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삼국유사』 기이, 태종춘추공)

있는지에 대한 분주가 달려야 한다. 그런데 분주는 한 술 더 떠 527년 당시 웅천은 신라에 속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정미년(527)은 이차돈의 순교와 흥륜사 창건이 있던 해라 다른 郡인 웅천에 절을 세울 겨를이 없다고 하면서 대통원년이 아니고 중대통 원년(529)년이라고 엉뚱하게 창건연대를 바로 잡고 있다.

분주의 작성자가 일연<sup>9)</sup>이라면 이러한 몰상식은 일연의 서술태도와 상반된다. 일연은 「원효불기」조에서 7세기 지방행정개편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0)</sup> (6)번에 대한 분주는 일연이 아닌 당시 역사에 대한 지식이 없는 누군가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sup>11)</sup>

그런데 (6)번의 내용을 어떤 형태로든 일연이 알았다면 일연은 대통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말 그대로 법흥왕이 웅진에 대통사를 세운 걸로 알아들었을까? 혹시 (6)번에 웅천주라고 하는 지명을 모두 웅진[공주]으로 보고 있지만 공주 아닌 다른 곳을 혹시 웅천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불행히 신라, 고려시대 공주 이외 웅천으로 불린 지역에 대한 기록은 없다. 그럼에도 (6)번의 내용을 태연하게 실은 것을 보면 웅천주에 세웠다는 대통사가 현 공주가 아닌 다른 곳에 세워졌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sup>12)</sup>

(6)번의 대통사가 ‘향전’이나 『국사』 등 어떤 자료의 인용이든 일연은 이것을 법흥왕의 업적의 하나로 「원중흥법염축멸신」조에 실었다. 어쩌면 백제 성왕이 대통사를 창건했지만 법흥왕도 공동창건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도움을 주었으므로 법흥왕의 입장에서 대통사를 창건하였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sup>13)</sup>

- 9) 이남석·서정석, 2010, 『대통사지』, 공주대학교박물관, 11쪽에서는 (6)의 대통사에 대한 분주를 일연이 작성했다고 하였다.
- 10)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麟德 2년(665) 중에 文武王이 上州와 下州의 땅을 나누어 敵良州를 두었는데, 즉 하주는 바로 지금의 昌寧郡이고, 압량군은 본래 하주의 속현이다. 상주는 곧 지금의 尙州로 혹은 湘州라고도 한다. 불지촌은 지금의 慈仁縣에 속해 있으니, 곧 압량군에서 나뉜 곳이다(『삼국유사』 원효불기).
- 11) 현 공주박물관 무령왕릉실 연표에는 대통사의 창건연대를 분주의 견해를 따라 529년이라고 적고 있는데 잘못이다.
- 12) 『삼국유사』에 ‘웅천주’는 ‘원중흥법염축멸신’의 대통사 관련기록과 ‘미륵선화전지사’, ‘경흥우성’, ‘손순매아 흥덕왕대’ 등에 4번 보이지만 모두 웅진[공주]으로 추정되고 있다.
- 13) “이런 점에서 527년에 신라 법흥왕이 양나라 무제를 위하여 웅진지역에 대통사를 건립하였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은 새롭게 이해될 필요가 있다. 당시 웅진이 백제의 수도였음을 고려할 때 법흥왕이 대통사를 건립하였다고는 생각하기 힘들고, 따라서 이 기록은 일반적으로 실제 건립 주체인 백제 왕실을 신라 왕실로 잘못 착각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즉 백제 성왕이 양나라 무제를 위하여 건립한 사찰인데, 후대에 건립 주체가 법흥왕으로 잘못 전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볼 때 법흥왕이 대통사의 창건자라고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대통사가 법흥왕에 의해 건립되었다는 전승이 있었던 것은 어떤 형태로든 법흥왕이 대통사의 건립에 관여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건립의 주체는 아니지만 협력자의 형태로 관여하였을 수 있는 것이다”(최연식, 2011, 「6세기 동아시아 지역의 불교 확산 과정에 대한 재검토 -百濟의 佛敎治國策과 주변 국가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충청학과 충청문화』 13).

### Ⅲ. 만들어진 이차돈의 순교연대 527년

일연은 『삼국유사』 「원종흥법염촉멸신」조의 여러 곳에서 527년이란 연대를 언급하고 있다.

- ① 신라본기에 이르기를, 「법흥대왕 즉위 14년에 小臣 이차돈이 불법을 위하여 제몸을 없앴다」고 하였으니
- ② 바로 蕭梁 보통 8년 정미(527)로 서천축의 달마가 금릉에 왔던 해이다.
- ③ 이 해에 낭지 법사가 역시 처음으로 영축산에서 불법을 열었으니, 大敎의 흥하고 쇠하는 것은 반드시 遠近이 동시에 서로 감응한다는 것을 여기서 믿을 수 있다.
- ④ 『**국사**』와 **향전**에 의하면, 실은 법흥왕 14년 정미(527)에 터를 잡고, 21년 을묘에 천경림을 크게 별채하여 처음으로 공사를 일으키고, 서까래와 대들보를 모두 그 숲에서 취해 쓰기에 넉넉했고, 계단의 초석이나 石龕도 모두 있었다. 진흥왕 5년 갑자에 절이 낙성되었으므로 갑자라고 한 것이다. 『승전』에 7년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 ⑤ 또 大通 원년 정미(527)에는 梁帝를 위하여 熊川州에 절을 짓고 이름을 大通寺라고 하였다. <熊川은 곧 公州인데, 당시는 신라에 속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마도 정미년은 아닌 것 같다. 곧 中大通 원년 기유(529)년에 세운 것이다. 흥륜사를 처음 세우던 정미년에는 미처 다른 곳에 절을 세울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①번의 「신라본기」를 『삼국사기』의 「신라본기」로 보기도 하지만<sup>14)</sup> 『삼국사기』는 이차돈의 순교를 법흥왕 15년(528)이라고 했기 때문에 ①은 『삼국사기』가 아니라 『구삼국사』일거라고 보기도 한다.<sup>15)</sup> 최근 논고에서도 전자의 견해에 따라 「원종흥법염촉멸신」조의 전거를 분석하면서 ① 「신라본기」가 『삼국사기』임을 재차 강조했다.

①번이 『삼국사기』 신라본기 법흥왕조의 기록을 토대로 서술되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는 법흥왕 15년조에 이차돈(염촉)의 순교 기록이 보이지만, 『삼국유사』에서는 법흥왕 14년으로 기록하고 있어 차이가 난다. 이것은 『삼국유사』의 청원법이 『삼국사기』의 「즉위년청원법」과 달리 「유년청원법」을 따로 있기 때문으로 왕력에서도 자주 확인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①번의 「신라본기」가 『삼국사기』의 기록을 가리킨다는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sup>16)</sup>

14) 이강래, 1990, 앞의 글; 1996, 『삼국사기전거론』, 민족사.

박대재, 2012, 앞의 글.

15) 김두진, 2014, 앞의 글.

『삼국사기』가 즉위년칭원법이고 『삼국유사』가 유년칭원법이라는 점에서는 필자도 동의한다.<sup>17)</sup> 그렇다고 하여 ①번 신라본기가 『삼국사기』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①번의 ‘신라본기’ 인용문에서 법흥왕 14년이 유년칭원이라면 이는 곧 즉위년 칭원하면 법흥왕 15년과 같다는 의미다. 곧 유년칭원의 법흥왕 14년이든 즉위년칭원의 법흥왕 15년이든 모두 같은 연대를 가리켜야 한다.<sup>18)</sup> 그래서 삼국사기 법흥왕 15년은 528년이고 삼국유사 인용 신라본기 법흥왕 14년도 528년이어야 하는데 ②번에 근거하면 527년이다. 따라서 ①번 신라본기는 『삼국사기』의 신라본기가 아니다. 백번 양보하여 ①번 신라본기가 『삼국사기』 신라본기라면 일연은 『삼국사기』 신라본기를 인용하면서 의도적으로 법흥왕 15년을 법흥왕 14년으로 1년 앞당겨 서술한 게 된다.

②에서 일연은 이차돈이 순교한 해가 달마가 중국 양나라 도읍인 금릉[건강]에 온 해인 보통 8년 정미라고 하여 527년임을 알려주고 있다.<sup>19)</sup> 즉 『삼국사기』 법흥왕 15년 무신(528)과 다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③에서 일연은 낭지법사가 영취산에서 불법을 연 527년과 같은 연대임을 말하고 있다. ④에서 일연은 『국사』와 ‘향전’을 인용하면서 법흥왕 14년 정미(527)에 흥륜사에 터를 닦았다고 하였다. ⑤는 전거가 불확실하지만(‘향전’ 또는 ‘『국사』’) 대통원년 정미(527)에 웅천주에 양무제를 위해서 대통사를 지었다고 하였다. 모두 5번에 걸쳐 527년을 언급하고 있다. 527년이 신라불교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삼국유사』에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①~⑤에서 ②번을 제외한 네 번의 527년이 과연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는 지는 알 수 없다. ②의 달마가 중국에 들어 온 연대는 모든 기록이 527년으로 보고 있다. ③의 낭지법사가 영취산에서 불법을 연 연대가 527년이라고 했는데 이 일에 대해선 같은 책 『삼국유사』 낭

16) 박대재, 2012, 앞의 글.

17) 조경철, 2016, 「연세대 소장 해인사 사간본 『역대연표』와 『삼국유사』 왕력의 비교」, 『동방학지』 173.

18) 『삼국사기』는 위덕왕 14년을 정해년(567)이라고 했고 「창왕명사리감」 “百濟昌王十三季太歲在丁亥妹□公主供養舍利”에는 창왕 13년(567)을 정해년 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칭원법이 다르더라도 정해년(567)처럼 연대는 같아야 한다.

19) 도원이 1004년 찬술했다고 전해지는 『경덕전등록』에는 달마가 보통 8년 정미 9월 21일 중국에 도착하여 10월 1일 금릉에 도착했다고 한다. 양역이 수정했다고 추정되는 설명에는 달마가 520년 중국에 도착하였다고 하였다. 『景德傳燈錄』卷3 : 「實梁普通八年丁未歲九月二十一日也。廣州刺史蕭昂具主禮迎接。表聞武帝。帝覽奏遣使齋詔迎請。十月一日至金陵[二十九]字—【明】'2(嵩禪師以梁僧寶唱續法記為據作正宗記言。達磨以梁武普通元年庚子歲至此土。其年乃後魏明帝正光元年也。若如此則與後入滅啟壙等年皆相合。若據此稱。普通八年丁未歲九月二十一日至南海。十月一日至金陵則甚誤也。蓋普通八年三月已改為大通元年。則九月不應高稱普通八年也。南海者今廣州也。去金陵數千里。刺史奏聞而武帝詔迎。豈可十日之間便至金陵耶。又按南史蕭昂本傳。不言昂為廣州刺史。但王茂傳未有廣州長史蕭昂。然不知何年在任。今止可云○達于南海實梁普通元年。廣州[刺]刺史具主禮迎接。表聞武帝。帝覽奏遣使齋詔迎請。十月一日至金陵。」(CBETA, T51, no. 2076, p.219, a13-21). 『조당집』에도 달마가 “보통 8년 정미에 양국(梁國)에 들어왔다”고 하였다.

지승운보현수조에서 자세한 내용을 싣고 있다.

龍朔 초에 智通이란 沙彌가 있었는데 伊亮公의 집 종이었다. 출가한 해에 나이가 일곱 살이었는데, 까마귀가 와서 울면서 말하기를, “영축산에 가서 朗智의 제자가 되어라”고 하였다. 지통은 그것을 듣고 이 산을 찾아가서 골짜기 안의 나무 아래서 쉬다가 문득 이상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보현보살[普大士]인데, 너에게 戒品을 주려고 왔다”고 하고는 이에 계를 베풀고는 숨어버렸다. 지통은 마음이 흰히 트여 智證이 문득 원만해졌다.

마침내 길을 가다가 한 스님을 만나 물기를, “낭지스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하니, 스님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낭지를 묻느냐?”고 하였다. 지통은 신기한 까마귀가 말한 사실을 자세히 말하였더니, 스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바로 낭지인데, 지금 堂 앞에서 까마귀가 와서 알리기를 ‘거룩한 아이가 스님에게로 오고 있으니 나가 영접하라’고 했으므로 와서 맞이하는 것이다”고 하였다. 이에 손을 잡고 감탄하여 말하기를, “신령스런 까마귀가 너를 깨우쳐 내게로 오게 하였고, 내게 알려서 그대를 맞이하게 하였으니 이 무슨 상서인가? 아마 山靈이 몰래 도우심인 듯하다”고 하였다. 전하는 말에 산의 주인은 곧 변재전녀라고 한다. 지통이 그 말을 듣고 울며 사례하여 낭지에게 예배하였다.

얼마 후 계를 주려고 하니 지통이 말하기를, “저는 洞口的 나무 아래에서 이미 보현보살이 와서 正戒 주는 것을 받았습시다”고 하니, 낭지가 감탄하여 말하기를, “잘했구나, 너는 이미 보현보살의 만분계[滿分之戒]를 친히 받았구나. 나는 한평생 하루 종일 조신하고 은근히 至聖 만나기를 염원했으나 오히려 이루지 못했지만, 이제 너는 이미 [계를] 받았으니 내가 너에게 미치지 못함이 멀구나”고 하고 오히려 지통에게 경례하였다. 이로 인해 그 나무를 普賢이라고 하였다. 지통이 말하기를, “법사께서 여기 계신 지 이미 오래된 듯합니다”고 하니, 낭지가 말하기를, “법흥왕 정미년(527)에 비로소 [불법의] 발을 붙였으니 지금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지통이 이 산에 온 것이 문무왕 즉위 원년 신유년(661)이니 계산하면 벌써 135년 전이 된다.

의상의 10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지통이 영축산의 낭지를 찾아가 물으니 낭지는 법흥왕 정미년(527)에 불법에 발을 들여 놓았다고 했다. 지통이 찾아간 661년과 비교해 보면 135년 전이 된다. 낭지가 불법을 오랫동안 닦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527년을 언급한 내용이므로 실제로 낭지가 527년부터 불법을 닦았다는 얘기는 아니다.

④에서 『국사』와 ‘향전’을 인용하여 법흥왕 14년 정미(527)에 흥륜사에 터를 닦았다고 하였는데 『국사』가 『삼국사기』라면 ①번처럼 일연이 의도적이던 오해였던 법흥왕 15년을 14년으로 바꾸었다고 볼 수 있다. ‘향전’에서도 법흥왕 14년 정미(527)라고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⑤의 대통사 창건연대를 527년이라고 했는데 대통사 기록은 여기 뿐이라 527년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다. ⑤가 『국사』의 기록이라면 『삼국사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삼국사기』에

는 대통사가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⑤가 『국사』의 기록이라면 『국사』가 『삼국사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자료가 된다. ⑤가 ‘향전’이라면 ④의 향전과 마찬가지로 527년을 대통사의 창건연대 곧 이차돈의 순교연대와 같은 연대라고 보고 있는 점이다.

『삼국사기』에 이차돈의 순교를 법흥왕 15년(528)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삼국유사』의 여러 곳에서 확신에 찬 어조로 527년이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학계의 모두는 이차돈의 순교를 527년으로 보고 있다. 末松保和와 이기백이 적극적으로 527년 설을 지지하게 된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sup>20)</sup>

말송보화는 삼국사기 신라본기 법흥왕조와 삼국사기 志를 상호비교하여 1년차가 난다는 점을 확인하고 법흥왕 15년의 이차돈 순교기사도 법흥왕 14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고 이기백도 이것을 탁견이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필자가 신라본기 법흥왕조와 삼국사기 志를 상호 비교해 보았더니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다. 어떤 경우는 1년 차이가 나지만 어떤 경우는 서로 맞았다. 병부의 설치와 사벌주 군주의 설치에 대해서는 1년 차이가 났지만, 상대등 설치나 금관국 구해왕 항복 연대는 그대로 서로 맞았다. 일률적으로 1년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없다. 더구나 이차돈 순교기사는 신라본기에만 보이고 지에는 보이지 않는 기사다. 그렇다면 당연히 신라본기의 법흥왕 15년(528) 기사를 따르는 게 순리다.<sup>21)</sup>

그럼 이차돈 순교연대는 『삼국사기』 신라본기 법흥왕 15년(528)이 맞을까? 아니면 『삼국유사』 인용 ‘신라본기’ 법흥왕 14년, 『삼국사기』에서 인용한 ‘『국사』’나 ‘향전’의 법흥왕 14년(527), 일언이 달마나 낭지의 고사를 끌어들이며 주장한 527년이 맞을까? 통상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연대가 서로 다를 경우 일반 연표에서는 거의 100% 『삼국사기』 연대를 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유독 이차돈 순교 연대만 527년 『삼국유사』 설을 따르고 있다. 그 근거로 드는 건 말송보화의 입론뿐이다. 물론 말송보화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志를 비교한 다음 신라 때 기록인 「봉암사지증대사비」를 인용하여 법흥왕 14년 이차돈 순교설은 신라 때부터 이어 온 설이라고 하였다. 신라 때 이차돈의 순교나 흥륜사 창건을 언급하고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 ① 이차돈순교비
- ② 『삼국유사』 인용 아도비
- ③ 『삼국유사』 인용 축향분예불결사문

20) 최연식도 이 견해를 따르고 있다. “신라의 불교 수용연대에 대하여 『三國史記』는 法興王 15년(528), 『三國遺事』는 法興王 14년 丁未(527)로 서로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 고려시대의 다른 자료들과 비교할 때 『三國遺事』의 견해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末松保和, 1995, 「新羅佛敎傳來傳説考」, 『新羅의政治と社會上』, 東京, 吉川弘文館, pp.197~199; 원래는 1954,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收録)(최연식, 2011, 앞의 글).

21) 조경철, 2015, 「이차돈의 순교연대에 대한 재검토」, 『한국고대사탐구』 20.

④ 『삼국사기』인용 계림잡전

⑤ 봉암사지증대사비

위 다섯 자료 모두 이차돈의 순교 연대를 527년이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다. 말송보화가 527년을 주장하면서 그가 신라 때 자료라고 인용한 기록은 ⑤봉암사지증대사비이다.

(상략) 때는 곧 양나라의 보살제가 동태사에 간지 한 해 만이요[時迺梁菩薩帝反同泰一春 我法興王副律條八載也], 우리 법흥왕께서 올령을 마련하신 지 팔년째였다[我法興王副律條八載也]. (하략) 이에 귀현한 근신이 있어 제 몸을 바치고, 임금이 삭발하였으며, 비구승이 서쪽으로 가서 배우고, 아라한이 동국으로 나오게 되었다. (하략)<sup>22)</sup>

말송보화는 ‘법흥왕이 올령을 마련한 지 팔년[我法興王副律條八載也]’을 올령을 반포한 법흥왕 7년(520)부터 8년째 되는 법흥왕 14년(527)이라고 하면서 이차돈이 527년 순교한 것은 신라 때부터의 전승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양나라의 보살제가 동태사에 간지 한 해[時迺梁菩薩帝反同泰一春]’에 대한 별다른 해석은 하지 않았다. 사실 올령을 반포한 520년부터 8년째라고 하면 520년을 포함해서 세느냐 아니면 521년부터 세느냐에 따라 1년 차이가 날 수 있다. 즉 법흥왕 7년(520)부터 8년 째는 법흥왕 15년(528)이 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면 527년보다 528년이다. 527년인지 528년인지 100% 확인할 수 없다면 바로 그 앞 문장인 ‘양나라의 보살제가 동태사에 간지 한 해[時迺梁菩薩帝反同泰一春]’란 문장과 상호 비교하여 연대를 비정해야 한다. 말송보화는 이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3월 신미 8일, 同泰寺에 행차하여 捨身하였다. 갑술 11일, 궁으로 돌아와 천하 사람들을 사면하고 연호를 (대통으로) 바꾸었다<sup>23)</sup>

봉암사지증대사비의 同泰는 동태사로 대통 원년(527) 3월 양무제가 사신한 절이다. 3월 신미 일(8일)에 사신한 무제는 갑술일(11일) 환궁하고 천하에 사면령을 내리고 대통으로 개원하였다. 비문의 一春은 1년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나라의 보살제가 동태사에 간지 한 해[時迺梁菩薩帝反同泰一春]’란 구절은 ‘양보살제[양무제]가 동태사가에서 돌아온 지 1년 만이다’라는 뜻이다.

22) (上略) 昔當東表鼎峙之秋 有百濟蘇塗之儀 若甘泉金人之祀 厥後西晉曇始始之貌 如攝騰東入句驪 阿度度于我如康會南行 時迺梁菩薩帝反同泰一春 我法興王副律條八載也 亦既海岸植與樂之根 日鄉耀增長之寶 天融善願地聳勝因爰有中貴捐軀上僊別髮苾芻西學羅漢東遊因爾混沌能開娑婆遍化莫不選山川勝概窮土木奇功藻宴坐之宮燭徐行之路信心泉湧慧力風揚果使灑杵鑿災鍵囊騰慶昔之叢爾三國今也壯哉一家雁刹雲排將無隙地鯨袍雷振不遠諸天漸染有餘幽求無辜女 (下略). 번역과 원문은 남동신 역주, 1995, 「봉암사지증대사탑비」, 『역주한국고대금석문』 통일신라·발해편 참조.

23) 三月辛未輿駕幸同泰寺捨身 甲戌還宮赦天下 開元(『梁書』卷3 武帝本紀 大通元年)

곧 528년을 말한다.<sup>24)</sup> ‘양나라의 보살제가 동태사에 간지 한 해[時泗梁菩薩帝反同泰一春]’란 구절과 대구가 되는 ‘법흥왕이 율령을 마련한 지 팔년[我法興王刪律條八載也]’의 연대도 528년이 된다.

신라 때 기록으로 이차돈의 순교를 527년으로 전하는 기록은 없으며 신라 때 기록으로 현존하는 기록인 「봉암사지증대사」에 의하면 이차돈의 순교는 528년이다. 신라 김대문의 『계림잡전』은 현존하진 않지만 『삼국사기』에 인용되었다. 『삼국사기』는 법흥왕 15년(528)조에서 이차돈의 순교를 말하면서 말미에 『계림잡전』을 인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흥왕 15년조가 『계림잡전』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라 때 기록인 「봉암사지증대사비」나 『계림잡전』에서 528년이라고 했는데 고려시대에 들어가면 새롭게 527년과 529년이 등장한다. 「대각국사비」, 『삼국유사』, 『삼국유사』 인용 ‘『국사』’나 ‘향전’ 등이 그것이다. 각훈의 『해동고증전』은 아도의 입국을 527년이라고 하고 있다. 특히 아도의 입국 날을 3월 11일이라고 했는데 이는 양무제의 사신 날에 맞춘 연대이다. 이차돈의 순교는 527년도 아니고 528년도 아닌 529년으로 보았다.<sup>25)</sup> 고려시대 신라의 528년이 아닌 527년 529년이란 새로운 설이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삼국유사』는 여러 곳에서 527년을 강조하고 있다.

고려시대 527년설이나 529년설이 등장한 배경은 중국 양무제의 사신과 달마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sup>26)</sup> 일연은 이차돈의 순교연대를 달마가 중국에 온 연대와 연관시켜 527년이라고 했고 각훈은 527년 양무제의 사신을 아도의 입국연대에, 529년 양무제의 또 한 번의 사신을 이차돈의 순교연대에 맞추었다. 신라 통일 이후 중국의 영향이 커지고 나말여초에 선종이 보급되면서 신라불교의 기념비적인 이차돈 순교 사건을 중국의 양무제의 사신이나 달마의 중국 입국과 대비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이차돈의 순교연대로 527년이 대두되었다.

#### IV. 대통사의 창건연대와 창건목적

이차돈의 순교연대 527년이 역사적 사실과 다르고 나중에 만들어진 연대라면 「원종흥법엄축멸신」조에 법흥왕이 대통원년 양무제를 위해 웅천주에 대통사를 세웠다는 기록도 재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일연이 어떤 이유에서 대통관련 기록을 인용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차돈의 순교가 527년이 아니라면 대통사가 대통원년에 지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은 잘못일 수

24) ‘一春’을 ‘그해 봄’으로 보고 ‘양보살제가 환궁한 그 해 봄이다’로 해석하여 527년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는 정당한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구복도 『역주삼국사기』(한중연)에서 528년으로 해석하였다.

25) 「축향분예불결사문」에서 이차돈 순교 연도는 언급하지 않고 죽은 날이 8월 5일이라고 하였다.

26) 적어도 『경덕전등록』이 출간되었다고 여겨지는 1004년 이후가 되겠다.

밖에 없다. 대통원년에 지었다고 본 것은 절 이름 대통사의 ‘대통’에서 유추한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물론 백제 관련 기록 -예를 들어 백제 향전이나 『국사』 백제본기에 있던 내용을 잘못 「원종흥법염축멸신」조에 잘못 편집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삼국유사』에 이런 경우는 없다. 그런데도 잘못편집이라고 좋게 봐주면서 백제 성왕이 ‘대통원년 양무제를 위해서 대통사를 창건했다’고 그냥 이해해 오고 있다.

백번 양보하여 ‘백제 성왕이 대통원년 양무제를 위해서 대통사를 창건했다’고 보아도 창건 연대가 527년일 수가 없다. 대통원년이라고 한 것은 일연이 대통원년(527)에 맞추기 위해서 설정한 연대일 수도 있음은 앞에서 지적했지만, 백제에서 대통원년에 대통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양무제가 동태사에 사신하고 돌아온 527년 3월 11일 대통으로 개원했는데 백제가 527년 그해 대통으로 개원했는지 알았으리라는 보장이 없다.<sup>27)</sup> 설사 대통 개원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해 대통사를 창건할 수는 없다. 개원 사실을 알고 대통사란 절을 짓기 위한 논의를 거쳐야 하므로 최소한 그 해(527)를 넘길 수밖에 없다. 대통 개원을 알고 절을 짓기는 시간 상 어렵게 때문에 절을 짓는 도중에 대통이라고 절 이름을 지었다고 보기도 한다.

백제가 이와 같이 양의 문화를 신속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 만큼 백제가 양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백제에서 대통사라는 이름은 527년 대통이라는 양의 연호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527년 백제에서 사찰이 완성되자, 마침 새로이 마련된 양의 연호를 축하하여 대통이라고 명명하였을 개연성이 큰 것이다.<sup>28)</sup>

절을 짓고 있다가 527년 대통으로 명명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절 이름은 절을 짓기 전에 절을 지을 목적에 따라 먼저 정해놓기 마련이다. 절은 527년 이전부터 짓기 시작한 셈인데 그 시기는 바로 무령왕과 무령왕비의 3년상 기간이다. 무령왕의 3년상은 523년부터 525년, 무령왕비는 526년부터 529년까지이다.<sup>29)</sup> 이 기간에 국가에서 지은 사찰이라면 당연히 왕과 왕비의 명복을 빌기 위한 원찰의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연례행사처럼 바꾸는 중국 연호의 개원에 따

27) 清水昭博, 2003, 「백제 ‘大通寺式’ 수막새의 成立과 展開-中國 南朝系 造瓦技術의 傳播」, 『百濟研究』 38. 清水는 대통사의 창건연대를 백제가 중국에 사신을 보낸 534년을 편년의 근거로 삼고 있다.

한편 조윤재도 527년 창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통사의 창건연대가 527년 이라는 견해에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당시 양의 영역내에서도 연호 변경에 대한 정보가 지역에 따라 지체되는 현상이 자주 보이고 있다. 특히 남조시기 일부지역 전실묘의 기년전에서는 이미 연호가 개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종전의 연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왕왕 보인다. 그런데 백제의 경우 527년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으나 견사나 다른 형식의 접촉을 통하지 않았다면 대통 개원의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527년에는 공식적인 견사의 기록이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고구려의 견사만 보일 뿐이다.”(조윤재, 2012, 「백제와 양의 교섭과 대통사」, 『공주대통사지와백제』, 아연출판부, 153쪽, 각주)

28) 박현숙, 2012, 앞의 글.

29) 조경철, 2009, 「백제 왕실의 3년상 - 무령왕과 성왕을 중심으로」, 『동방학지』14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라 원래의 절 이름을 버리고 새로 절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sup>30)</sup> 한편 대통사의 대통이 연호가 아니라는 점을 연호와 피휘 문제를 다루면서 언급한 견해도 있다.

연호의 경우 중국 봉건국가의 피휘 대상 중 주요 항목으로 그 사용은 황제 일인에게만 허용된 조목이었다. 그렇다면 당시 남조의 典章에 밝았던 백제가 피휘의 개념을 전혀 몰랐다가거나 무시할 입장은 아니었을 것이다. 또 양무제를 위해서 사찰을 창건한다는 사안은 외교적으로 일련의 교섭과정이 필요했을 것인데 이를 건강성에 통지하지 않았을리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양의 전장제도가 과연 이를 수락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양조 경내에서도 무제의 연호를 참용하는 것이 엄금된 정황에 비추어 보면 그 동기와 의도의 순수성을 떠나 域外 지역의 刹名에 현금의 황실 연호를 冠名했다는 것은 의문이다. 이를 염두해 둔다면 “대통”의 刹名은 양무제의 연호보다는 다른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sup>31)</sup>

위 논거에 따르면 대통사란 절은 대통 개원 이전에 만들어진 절 이름이어야 한다. 적어도 백제에서 양무제의 대통개원을 몰랐을 시기에 지은 절이 되어야 한다. 대통이란 절 이름도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다른 배경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필자는 1995년 석사논문 때부터 『삼국유사』 「원종홍법염촉멸신」조의 대통사 관련기록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대통사의 대통은 양무제의 연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sup>32)</sup> 대통이 양무제의 연호가 아니라면 그 대안으로 부처이름인 대통불을 제안하였다.

『법화경』에 의하면 전륜성왕의 아들 대통이 출가하여 대통불이 되었고 위덕불로 불리기도 했다. 대통불에게는 16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지적이고 막내는 법왕이었다. 백제 왕실의 계보를 보면 성왕-위덕왕-법왕이 있었다. 이 계보를 『법화경』의 석가모니의 계보와 연관시키면 성왕이 법화경의 전륜성왕, 위덕왕은 법화경의 위덕불, 법왕은 법화경의 석가모니[법왕]에 해당된다. 대통사의 대통은 법화경의 대통불의 대통에 해당된다. 사택지적은 법화경의 지적에 해당된다. 문제는 사택지적이 왕실계보가 아니라는 점이다. 필자는 사택지적이 왕실계보는 아니지만 왕실과 혼인한 제 1급의 귀족이었기에 대통불의 큰 아들이며 석가모니의 큰 형 이름인 지적이란 이름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 가운데 익산미륵사에서 사택왕후가 등장함으로써 사택씨가 왕실과 혼인관계로 맺어졌음이 확인되었다.

대통사의 대통이 연호가 아니고 대통불이란 부처 이름이라면 창건연대를 알 수 없게 된다.

30) 필자는 예전에 527년 이전 525년 대통사란 절을 완공했는데 527년 대통연호가 쓰이면서 대통사에는 원래의 대통이란 의미와 양무제의 연호 대통이란 의미가 중첩되어 전해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았다. 조경철, 2006, 박사학위논문.

31) 조운재, 2012, 앞의 글, 154쪽.

32) 조경철, 1995, 「백제불교의 수용과 전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경철, 2006, 『백제불교사의 전개과정과 정치변동』,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조경철, 2015, 『백제불교사연구』, 일조각.

그때 필자는 대통사의 창건연대를 성왕이 즉위한 523년부터 ‘대통’이란 연호가 알려지기 전인 527년 사이로 추정해 보았다. 그 사이 왕실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을 찾아보았다. 바로 무령왕의 3년상과 위덕왕의 탄생이 있었다. 그래서 대통사의 창건연대를 무령왕의 3년상이 끝나는 해이고 위덕왕이 탄생한 연대로 추정되는 525년으로 추정해 보았다. 위덕왕의 탄생연대에 대해서는 『일본서기』를 통하여 유추하였다.

백제의 왕자 餘昌(明王[聖王]의 子, 威德王이다)은 나라 안의 군사 전부를 일으켜 고려<sup>33)</sup>에 가서 백합야에 요새를 쌓고 병사와 침식을 같이하였다. (중략) (고려 장수가 나와서 말하기를) “부하들이 말하기를 ‘우리 들판에 손님이 왔다’고 하였다. 마중하여 예로 대하지 않으면 안된다. 원컨대 나와 예로써 응답하는 사람의 성명, 나이, 지위를 속히 말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여창이 대답하여, “姓은 (고려와) 동성이고, 지위는 간솔, 나이는 29歲”라고 말하였다. 다음 백제측에서 물은 즉, 전의 법도에 따라 대답하였다(『日本書紀』 卷19 欽明 14年(553) 冬十月 條).

왕자 여창[훗날 위덕왕]이 고려(전고려=고구려) 군과 싸우면서 서로의 나이를 묻고 있는데 이 때 창왕의 나이를 29세라고 하였다. 554년을 기준으로 29세라면 창왕이 태어난 해는 525년이 된다. 물론 『일본서기』를 근거로 창왕의 탄생을 525년으로 보고 대통사의 창건연대도 525년으로 보는 필자의 견해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도 있다.

(대통사의 창건연대에 대해 -필자 추가) 525년 설이 나오게 된 결정적 계기는 위덕왕이 태어난 해라는 것이다. (중략) 『일본서기』 흠명기 14년(553) 겨울 10월 조에 나오는 여창의 나이 ‘29세’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료는 신뢰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중략) 따라서 이 기사 사실성 여부에 의문이 가며, 553년에 해당되는 기록이라기보다는 550년대 초반 고구려와의 전투기록이 『일본서기』 흠명기 14년(553)조에 투영된 것이 아닌가 한다.<sup>34)</sup>

위의 지적대로 『일본서기』의 기록이 100% 신뢰할 수 없는 기록이라는 점에서는 필자도 의견을 같이한다. 그러나 필자가 대통사의 창건연대를 525년이라고 비정하는 데는 창왕의 탄생연대도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지만 무령왕의 3년상 기간도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다. 무령왕의 3년상 기간에 절을 짓기 시작하여 적어도 3년상이 끝나는 525년에 대통사가 창건된 것으로 보았다. 설사 창왕의 탄생연대가 525년이 아니라고 하여 대통사가 527년에 세워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대통사가 527년 이전에 세워졌다고 보면서 그 가설의 하나로 525년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창왕의 나이 문제를 지적한 논자도 창왕의 나이를 『일

33) 『일본서기』는 고구려가 모두 고려로 되어있다.

34) 박현숙, 2012.2, 「백제 웅진시기의 정국과 대통사 창건」, 『공주대통사지와백제』, 아연출판부, 32~33쪽.

본서기』 기사를 자설의 논리를 펼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한 적이 있었다.

무왕 이전 혜왕과 법왕 시기의 정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왕의 생존연수를 어림잡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서기』 흠명기 14년(553)조를 보면, 위덕왕이 즉위 이전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자신의 나이를 29세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일본서기』 18년(557) 3월조를 보면 아버지인 성왕의 뒤를 이어 아들인 여창이 위덕왕에 오르고 있다. 따라서 이 기록들을 참고한다면 위덕왕의 즉위 시 나이는 33세가 된다. 그런데 위덕왕이 45년을 재위했으므로, 위덕왕이 78세 즈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sup>35)</sup>

『일본서기』 기사를 근거로 하여 창왕의 나이와 즉위 시의 나이 죽었을 때의 나이를 추정하고 있다. 『일본서기』를 적극적으로 인용한 논문은 2009년이고 필자의 설을 비판한 논문은 2012년이다. 2009년의 생각이 2012년에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필자가 『일본서기』 창왕의 기사를 근거로 창왕의 나이를 비정한 것도 무리한 비정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 V. 맺음말, 공주 대통사와 동아시아 불교

기존 동아시아 불교에서 527년은 획기적인 해다. 중국의 527년은 양무제가 동태사에 사신하고 대통으로 개원한 해다. 달마가 중국 금릉에 들어와 선종을 전한 해이기도 하다. 백제의 527년은 백제의 성왕이 양나라 무제를 위해 백제 도읍인 웅진에 대통사를 세운 해이다. 신라의 527년은 이차돈이 순교한 해이고 신라 최초의 사찰인 흥륜사를 짓기 시작한 해이다. 신라의 낭지 법사가 영축산에서 법문을 연 해이기도 하다.

527년의 소용돌이는 중국에서 시작해 바다를 건너 백제에 대통사를 세우게 했고 백두대간을 넘어 신라로 가서 이차돈의 순교를 낳았다. 백제와 신라의 국가불교의 시작은 대통사와 흥륜사로 시작하는데 그 정점에는 중국의 양무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백제와 신라의 술한 불교 가설들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백제의 대통사는 양무제의 사신과 전혀 관련없이 창건되었으며 신라의 이차돈 순교도 양무제의 사신이 직접적인 계기가 아니었다. 이차돈 순교의 직접적인 원인을 든다면 백제의 대통사가 될 것이다. 백제의 대통사 창건이 신라 법흥왕으로 하여금 무리해서 불교를 공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한 것이다.

양무제가 생각한 불교는 527년 동태사의 사신으로 나타났다. 백제 성왕이 생각한 불교는 무령왕의 3년상을 치르는 가운데 525년경 완공된 대통사를 통해서 실추된 백제 왕실을 석가계보

35) 박현숙, 2009.8, 「백제무왕의 의산경영과 미륵사」, 『한국사학보』 36, 332쪽.

와 연결시켜 왕족의 신성성을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신라의 법흥왕은 불교를 공인하여 동아시아 보편문화에 합류해야겠다는 적극적인 마음이 528년 이차돈의 순교와 흥륜사의 창건으로 나타났다. 공교롭게 같은 시기에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나름대로의 불교발전을 이루어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고 527년 양무제의 사신을 정점으로 해서 백제와 신라불교를 논하여 왔다.

특히 대통사가 언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세워졌는가는 527년 당대의 백제와 중국의 관계 뿐만 아니라 향후 백제와 중국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방향키와 같은 중요한 문제이다.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교하고 단시 『삼국유사』의 잘못된 기록을 신라 법흥왕을 백제 성왕으로 바꾸어 이해하기에는 사안의 중요성이 너무나도 크다.

하지만 1995년 이후 필자의 이러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기록이라도 『삼국유사』에 실려 있다는 단지 그 이유만으로 양무제의 대통을 따라 대통사란 이름이 지어졌다는 통설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본 글에선 방향을 틀어 일연이 그렇게 강조한 527년이란 이차돈의 순교 연대와 흥륜사 창건 연대가 실은 잘못된 연대였음을 밝혔다. 대통원년(527)이란 대통사 창건연대도 527년을 강조하기 위한 연장선상에서 나온 연대라는 점을 강조해 보았다.

## 〈참고문헌〉

『景德傳燈錄』, 『祖堂集』

末松保和, 1954,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이강래, 1990, 「삼국유사에 있어서의 구삼국사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동방학지』 66.

남동신 역주, 1995, 「봉암사 지증대사탑비」, 『역주한국고대금석문』 통일신라·발해편.

末松保和, 1995, 「新羅佛教傳來傳説考」, 『新羅の政治と社会 上』, 東京, 吉川弘文館.

조경철, 1995, 「백제불교의 수용과 전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강래, 1996, 『삼국사기전거론』, 민족사.

정구복, 1999, 『「삼국유사」에 인용된 국사와 삼국사』, 『한국중세사학사』, 집문당.

강인구 외, 2003, 『역주삼국유사』, 한국학중앙연구원.

清水昭博, 2003, 「백제 「大通寺式」 수막새의 成立과 展開-中國 南朝系 造瓦技術의 傳播」, 『百濟研究』 38.

조경철, 2006, 「백제불교사의 전개와 정치변동」,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박현숙, 2009, 「백제무왕의 익산경영과 미륵사」, 『한국사학보』 36.

조경철, 2009, 「백제 왕실의 3년상 -무령왕과 성왕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4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이남석·서정석, 2010, 『대통사지』, 공주대학교박물관.

정구복도 외, 2011, 『역주삼국사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최연식, 2011, 「6세기 동아시아 지역의 불교 확산 과정에 대한 재검토 -百濟의 佛教治國策과 주변 국가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충청학과 충청문화』 13.

박대재, 2012, 「『삼국유사』에 보이는 대통사 기록의 맥락과 전거」, 『공주대통사지와 백제』, 아연출판부.

박현숙, 2012, 「백제 웅진시기의 정국과 대통사」, 『공주 대통사지와 백제』, 아연출판부.

조운재, 2012, 「백제와 양의 교섭과 대통사」, 『공주대통사지와백제』, 아연출판부.

김두진, 2014, 『삼국사기의 사학사적 연구』, 일조각.

조경철, 2015, 『백제불교사연구』, 일조각.

조경철, 2015, 「이차돈의 순교연대에 대한 재검토」, 『한국고대사탐구』 20.

조경철, 2016, 「연세대 소장 해인사 사간본 『역대연표』와 『삼국유사』 왕력의 비교」, 『동방학지』 173.

## Daetongsa Temple in Gongju and Buddhism of East-Asia

Jo, GyungCheol

A phantom appeared in Samghuyusa. It's name is 527. The year of 527 is an epoch in East-Asia history. That year Baekje established Daetongsa for Yang Emperor Mu[梁武帝] of China. That year Shilla Ichadone[異次頓] suffered martyrdom for faith. That year a site of Heungryunsa Temple was prepared. That year monk Nangji of Shilla preached Buddhist teachings in Yeongchwisan Mountain.

But those events of Baekje and Shilla did not occur in 527. That year was cobbled together. That year Yang Emperor Mu of China became a monk awhile. That year Dharma of Indo came to China to preach Zen Buddhism. Actually martyrdom of Ichadone was not 527 but 528. Establishment of Daetonsa Temple also was not 527. Both were phantoms that desire made to imitate China.

Key words : 527, phantom, Yang Emperor Mu[梁武帝], Dharma, Daetongsa Temple, Ichadone[異次頓]